

# ‘위대한 전통’을\* 넘어서

—유럽에서의 조선시대사 연구의 최근 동향—

안데쉬 칼손\*\*

번역 : 안종철\*\*\*

1. 서론
2. ‘위대한 전통’을 넘어서
3. 정치 및 제도사
4. 외교 및 지역사
5. 사회경제사
6. 지성사 및 종교사
7. 결론

\* 이 표현(위대한 전통 : ‘the Great Tradition’)은 Edwin O. Reischauer and John K. Fairbank, *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 (Boston : Houghton Muffin, 1960)(최종 개정은 1989)(『동양문화사』(상권은 전해종이 1989, 하권은 김한규가 1992년에 각각 을유문화사에서 번역 출간)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중심의 유교문화’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 런던대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한국학 담당 부교수(Senior Lecturer).

\*\*\* 한국근현대사전공, 전 인하대 HK연구교수. 각주는 번역자의 역자주이고 미주는 원저자의 주이다(미주는 #번호로 표기). 번역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역자가 [ ] 속에 내용을 추가했다.

## 1. 서론

유럽에서의 조선시대에 대한 현재의 연구 상황을 개관하는 비평논문을 쓴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보람이 있는 작업이다. 최근 유럽 각 지역에서 확실히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본다. 비록 이러한 성장이 주로 사회과학과 현대 한국이라는 영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고양이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 부수적으로 한국사 연구의 연관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보다 눈에 띄는 현상은 한국에 관한 연구가 한국학이라는 분과를 넘어서고 있고, 한국 관련 전문가들이 역사학을 포함해서 다른 학문 분과에서도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도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학문 분과 [성격]과 관련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유럽이라는 지리적 영역의 다면적인 성격에 기원을 두고 있다. 첫째, 20세기 이전의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어적 난관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정복한 후에 그들은 때로는 이두(吏讀)를 포함, 대부분의 경우에 한문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학이라는 프레임 내의 역사 연구는 유럽 내 한국학의 문헌학적 전통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종종 ‘전통시대의(traditional)’ 한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학이라는 분과 밖에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중국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19세기 이후의 한국을 [주요]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에 대한 현재의 관심과 이에 따른 한국사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은, 아직은 근대 이전 시기에 대해 의미있는 정도의 학문적 연구를 생산하지 못했다.

한국학이라는 광범위한 분과학문의 포괄적인 특성과, 일정하게는 유럽의 문헌학적 전통의 결과는 나아가,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의 많은 부분들

이 분과학문상 정의되기 어렵게 만든다. 연구가 주로 자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종종 [일정한] 이론과 방법론과의 광범위한 결합을 통해 명확한 분과학문상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자’ 공동체 안에서도 역사학자들이 아닌 연구자들이 조선시대 역사 연구와 명확히 관련된 글들을 쓰기도 하기에 수많은 역사관련 업적들이 다른 분과학문들과 연결된다.

또 다른 [한국학 발전의] 저해 요소는 유럽의 지역적 특징과 연관이 된다. 영어가 점점 더 학문적 공통어(lingua franca)가 되어가지만 유럽은 언어면에서 눈에 띄게 다양한 지역이므로 [연구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게다가 학문전통·관심사·연구경향 등이 달라서 현 상황에 대한 일관성있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된다.

## 2. ‘위대한 전통’을 넘어서

하지만 아래에 전개될 서술을 안내하고,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리적] 다양성과 학문 분과의 애매함에 따르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유럽 내 학문발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한 광범위하게 지침이 되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주제를 서구의 동아시아학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 두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당기간 동안 서구에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주된 접근 [방식은] ‘위대한 전통’이라는 방법이다.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와 존 패어뱅크(John K. Fairbank)의 영향력 있는 업적인 『동아시아 : 위대한 전통(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에<sup>1)</sup> 의해 그러한 기초가 설정되었는데,

이 학파는 [동아시아] 역내의 공통의 중국 중심의 유교 문명의 존재를 강조했다.<sup>#1)</sup> 이 접근의 주된 특징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지식인 엘리트의 저작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들 엘리트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공유한다.

조선의 경우에 ‘한국의 유교화’라는 개념은 한국과 서구에서 상당기간 역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부분적으로는 ‘위대한 전통’이라는 접근에 대한 학문적 관심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경사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유교화’되었고 전통시대의 한국은 중국 중심의 역내 지역질서에 적극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조공국가였다는 널리 공유된 이해[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관 ‘위대한 전통’학파의 업적에서는, 유교이데올로기의 성립, 이데올로기에 자극을 받은(motivated) 정치·사회·법적 개혁, 그리고 국가와 양반의 역학관계라는 이데올로기적 구조 등에 학문적 초점이 맞추어졌다.

조선의 국가와 사회를 ‘유교적’이라는 것으로 상정(想定)하려는 경향과, 푸코의 ‘진실 체제(truth regime)’의 형성에<sup>2)</sup> 대해 경고하면서 마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는 조선시대의 유교의 역할을 이해할 때 이데올로기의 너머를 볼 필요와 [유교의] ‘실행의 논리(logic of practice)’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sup>#2)</sup> 자신의 역작인 『한국의 유교적 변환(*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을 통해, 도이힐러가 유교화된 한국이라는 개념을 세우는데 매우 큰 영향

1) 중국 중심의 ‘유교화’ 문제로만 한국사, 특히 조선시대를 설명하는 데 대한 비판은 안종철, 2013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 연구』 29, 314~315쪽 참고.

2) 푸코의 사회 분석의 개념으로, 한 사회가 특정 범주를 설정하고, 그들을 분류, 타자화시키는 메커니즘과 그 효과를 권력행사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유럽사회가 역사적으로 나병환자들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들 수 있다. 이규현 역, 2003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제2장 ‘대감호(大監護)’ 참고.

력을 행사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의사항(caveat)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구축물이라는 제약요소(constraining shadow)와 ‘한국의 유교화’ 등에서 벗어나서 실제 관례의 다층적인 실제, 과정들, 작동원리 등을 이해하려는 현대 유럽의 대표적인 학문적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sup>

이 비평논문의 주된 목적은 현재 유럽의 학계에서 ‘위대한 전통’학파의 학문적 관심사들을 뛰어넘는 정교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럽의 연구경향에 대한 그림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절한 틀을 제공하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만 언급할 모든 저작들이 이러한 틀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유럽에서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연구는 작은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비평논문에 적절한 비평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글은] 지난 15년간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적으로 중첩되는 시대를 다루면서 대한제국시기도 포괄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박사 논문을 작성중인 소장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들도 포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선택하고 있는 구조는 현재의 연구들을 다음의 하위분과에 따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다. 즉 정치와 제도사, 외교 및 지역(regional)사, 사회경제사, 그리고 지성사 및 종교사이다. 만약 관련성이 있다면 유럽에서의 연구 상황은 한국의 학문적 성과와 비교될 것이다.

### 3. 정치 및 제도사

‘조선의 역사’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치적 단위를 연구의 단위로 삼는다면 정치와 제도사는 자연스럽게 핵심적인 분과를 구성한다. 우

리는 그러한 [정치와 제도사의] 중심에서 이데올로기나 한국의 유교화에 대한 두드러진 관심을 찾을 수 있다. 예상대로 서구의 학술 성과는 유교적 규범과 가치들이 어떻게 정치 문화, 국가 운영, 그리고 법률 체계에 스며들면서도 [그것들을] 주도하게 되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sup>#4)</sup>

수십년 동안 사회사가 주도한 한국의 역사학계는 최근에 정치와 제도사의 부흥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유교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와 관련이 있는데 단순히 발전을 가로막고 왕조의 멸망에 기여한 보수적 힘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시대의 발전에 유익한 요소로서 유교이데올로기를 보는 경향 때문이다. 초기와 현재의 학문 성과의 두 개의 대조적인 입장을 약간 과장하자면, 중요한 질문은 유교가 국가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statecraft)을 촉진한 긍정적 도구였는가 아니면 단순히 지배층이 정치를 장악하고 나머지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는 가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유교적 국정 운영의 전통은, 서구학계에서도 빈 윈(R. Bin Wong)이나 알렉산더 우드사이드(Alexander Woodside)와 같은 유럽 중심적 경향의 초기 접근 방식에 도전하는 학자들에 의해 재평가되고 있다.<sup>#5)</sup> 사실 다른 세부주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역사에 대한 학문 성과는 너무 적어서 특정한 경향을 지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광범위한 이분법적 경향과 관련해서, 현재의 유럽에서의 연구 경향은 지배엘리트와 왕실권력간의 정치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가를 하나의 독립적인 활동자(actor)로 보면서 정치의 작동 방식이나 정치 체제와 제도들이 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정치와 제도사에 관련된 몇몇 유럽의 연구는 반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반란과 불안정은 한국 학계에서 인기있는 주제였고 사회사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했다. 유럽

에서 반란에 관련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 및 제도사의 연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정치적 과정과 국가와 사회간의 역동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성격상 전통적인 정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최근의 영어권의 업적은 아마도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1728년 무신(戊申) 반란에<sup>3)</sup> 관한 것이다.<sup>6)</sup> 현존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찰스 킬리(Charles Tilly)의 이론을 활용하면서 그의 글들은 정치적 ‘과정들(processes)’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정치적 폭력(violence)으로 전개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정치적 과정들은 바로 당파주의와 국왕 영조의 당파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잭슨의] 이 연구에서 당파주의를 다룰 때 그것의 사회-정치적 결과를 다룬다기 보다 궁정에서 그것이 가진 정치적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그의 연구는, 유교적 국정 운영이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기 보다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교국가로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과정과 협상들의 실제 모습, 그리고 정치적 중심에서의 당파주의의 내적 논리를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하지만 잘 연구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을 제공한다.

정치 및 제도사의 눈으로 연구된 반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안데쉬 칼손(Anders Karlsson)의 19세기 민란, 특히 1812년 홍경래의 난에 대한 연구들이다.<sup>7)</sup> 1728년의 사건들에 비해 19세기 민란은 [변화한]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보다 규정지어졌으므로 [기존 연구들은] 압도적으로 사회사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이에 반해 칼손의 연구는 지방행정의 제도들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변화하는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왕조의 지방 행정의 ‘소통능력(communicative capacity)’에 초점을 맞추고 군단위

3) 이인좌의 난(李麟佐의 亂)으로 영조(英祖) 4년(1728년)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으킨 반란이다. 이후 소론이 붕괴한 후 노론의 득세를 가져오게 되었다.

의 제도들을 '사회의 무대들'로 다룸으로써 칼슨의 연구는 실제적인 정치과정과 협상들을 부각시켰다.

칼슨은 [정치]과정과 협상과 관련된 학문적 관심을 조선의 법률 체제와 형벌의 실행이라는 주제에 더해 기근과 재난 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그의 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이상을 국가의 실제적 필요성들에 대조시킴으로써 유교이데올로기가 국정 운영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정치적, 정치-사회적 과정들에 관심을 기울였다.<sup>#8)</sup>

마지막으로 한 영국학자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분석했다. 수도의 길드 중 하나인 면주전(綿紬團)의 비단상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오웬 밀러(Owen Miller)는 교토(京都)대학교 도서관의 카와이문고((河合文庫)에 주로 있는 길드 문서들을 깊이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의 한 단면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출간했다.<sup>#9)</sup>

#### 4. 외교 및 지역사

외교와 지역의 역사라는 점에서 최근 한국의 학계는 '위대한 전통'학과 학자들이 만들어낸 동아시아 조공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재해석과 재평가를 수행해왔다. 조금은 다른 관심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서구의 한국 관련 연구도, 새로운 관점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동아시아 지역과 역내 질서를 다루기 시작했다.

민족사의 한계로부터 탈피하고 지역학(area studies)의 영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학자들이 지역의 (regional) 역사에 대한 연구에 참여해왔음이 목도된다. 그것은 국경과 경제지역에 대해 초점을 맞추으로써 조공체제를 다시 재고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보다 실제적인(mundane)

이유는 재정 지원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최근의 연구 체제와 더불어, 학제 간, 여러 기관간의 보다 큰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대학의 전략들이, 역사사 자체를 그런 연구의 적격자로 보는 입장을 지지(promote)하기 때문이다.

연구가 어디서 진행되는가와 별개 문제로, 지리적 범위에서 [동아시아] 전체 지역을 바라보면서 19세기 이전 시기를 다루는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대신에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한 지역으로, 혹은 한반도와 일본 제도(諸島)를 다른 한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명백한 이유들 때문에 생긴 하나의 예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각지역의 격변의 사건들을 다루는 연구일 것이다.<sup>4)</sup>

서구의 학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비록 북미의 학자들에 의해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졌지만<sup>\*10)</sup> 유럽에서의 관심은 주로 한반도와 일본의 제도를 하나의 독자적인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제임스 루이스(James B. Lewis)를 중심으로 한 옥스퍼드(Oxford)대학의 일단의 연구진들에 의해 잘 드러난다.

루이스는 주로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탐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경상도지역과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여러 다른 측면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sup>\*11)</sup> 옥스퍼드에서 루이스와 함께 연구하는 학생들은 마셜 크레이그(Marshall Craig, 중국·한국·일본에서의 세계관과 국가적 정체성 : 임진전쟁의 초국가적 미시사, 1592~1598), 정은진(임진전쟁의 문화적 전이의 중요성), 그리고 지그프리드 웨스트베르그(Sigfrid Östberg, 19세기 초의 한일간의 상호 인식)이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오를리앙 라뤼랑디에(Aurelien Laroulandie)가 사회과학대학원(EHESS)의 박사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에

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변동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역사는 대규모 연구 협동에 적합한 분야인데 프랑스에서 그 중 하나에 라튀랑디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관련되면서도 전체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15~20세기의 극동아시아의 무역과 교류 (Circulations et contacts en Asie Orientale, XVe-XXe siècles)’이다.<sup>#12)</sup> 제한된 지역 범위를 가지면서도 보다 장기간을 다루는 다른 프로젝트로는 [네델란드 라이덴대학교의 ‘북방 한국관련 프로젝트(Leiden Initiative on Northern Korea)’를 들 수 있다. 비록 2009년에 끝이 났지만 또 다른 프로젝트로 들 수 있는 것이 독일에서 주도한, 한국을 포함해서 다루는 ‘동아시아의 해양역사(East Asian Maritime History)’였다. 결과물로 출판된 『동아시아의 지중해의 무역과 이동(Trade and Transfer acros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은 한국과 관련된 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마도의 해적과 무역상인, 그리고 한국과 류큐琉球, 오키나와의간의 물자 교환 등을 다룬다.<sup>#13)</sup>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럽에서 한국학에 대한 많은 업적들은 주로 자료 중심이다. 유럽 국가의 국가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유럽 국가와 관계된 연구는 자신의 국가로부터 생산된 특정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 개인의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에만 종종 국한된다. 사용된 자료의 종류는 여행기, 외교 자료, 그리고 선교사 기록 등을 포함한다. 초기 시기를 다루는 그런 종류의 연구들 중 한 예는 17세기 네델란드 표류자인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서 강제로 체재하게 된 것을 다룬 그의 글에 바탕을 둔 작업이다.<sup>#14)</sup>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부터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더 많은 유럽인들이 방문함으로써 그 당시 이후부터는 분석할 자료들이 더욱 풍부하게 존재한다. 영국학계는 브루턴(Broughton)선장이나 바실 홀(Basil Hall)과 같은 초기 영국 여행자들을 다루는 수많은 연구들을 생산해왔다.<sup>#15)</sup> 19세기에 한

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선교학이나 종교사에 속해왔지만 그 중 몇몇 연구는 동아시아에서의 프랑스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제공해준다.<sup>#16)</sup>

‘전근대’시기의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측면이 가진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19세기 말의 역사, 즉 더 많은 숫자의 서구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오게 된 시대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몇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조공체제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들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19세기 말의 외교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활동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관점이라든가 전통 대 근대라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외교의 실제적 과정들을 이해하는 노력으로 나아가게 한다.<sup>#17)</sup>

그러나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보다 넓은 외교사나 국제사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지 못하며 여전히 국가 단위의 특정 자료에 기초하거나 좁은 범위의 주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sup>#18)</sup> 마이클 핀치(Michael Finch)의 민영환에 대한 연구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볼 수 있다.<sup>#19)</sup> 그리고 진상필(Sangpil Jin)은 런던대 SOAS의 연구생으로 그의 박사 논문은 19세기 말 [조선의] 중립화 제안이나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일본·미국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외교문서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 5. 사회경제사

조선시대 역사의 대부분의 분과가 각기 자신들의 열띤 토론 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근대성과 그것의 속성들(qualities)이라는 문제는 사회경제

사에 질게 드리워진 주제이다. 오랫동안 한국과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다소 큰 간극이 있었다. 한국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근대화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서구학계는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19세기 이전의 한국에 적용하는데 주저해왔다.

마르티나 도이힐러는 유럽에서 조선시대 사회사의 개척자인데 다른 어떤 학자도 주된 관심사를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그녀의 저작인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 사회와 이데올로기의 연구(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는 양반이 지배한 조선시대 사회의 기본 성격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도이힐러는 한국사회의 이런 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도이힐러 자신이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역할을 이해할 때 “유교화”라는 개념의 유효성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실제의 논리(logic of practice)’에 보다 관심을 쏟고 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가 자신의 새로운 종류의 연구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종법(宗法)체제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변화하는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대면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 중 하나였던가? 유교적 친족 조직은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된 것인가? 문중 조직(lineage organization)은 국가에 대해 엘리트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인가?”<sup>#21)</sup>

도이힐러의 조선 사회사에 대한 연구가 시간대나 주제면에서 근대성이라는 쟁점이 갖는 중요성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 논점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조선시대 경제사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근대성’이라는 문체와 관련해서, 만약 현재의 유럽에서의 연구동향을 초기 서구의 연구와 비교한다면 전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연구는 근대성을 역사적 용어(18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

되어 후일 서구 문명과 조우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사적 과정)로 보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새로운 접근법의 이 개념은 조선후기 발전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회학적 용어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아직도 학자들이 ‘근대성’이라는 용어를 자신들의 논리에 활용하는데 인색하지만 그들의 [한국 관련] 연구들은 종종 유럽의 근대 초기의 역사와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유럽의 경험에서 근대성의 조성인자로 규정해온 특질을 토론하거나, 혹은 그런 의미에서 ‘근대 초기의 세계’에 대한 담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국역사에 적용해왔다.<sup>#22)</sup>

동시대 세계사에서의 보다 큰 규모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조선후기를 다루는 연구의 한 예는 조선후기 경제에 대한 제임스 루이스(James B. Lewis)의 업적을 들 수 있다. 중국경제사학자인 케네스 포메란츠(Kenneth Pomeranz)의 작업과 유럽과 동아시아 경제의 상대적으로 늦은 분기(分岐)라는 개념에서<sup>5)</sup> 특별한 영향을 받아서, 루이스는 그러한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선경제의 양적 측면을 여러 공동 집필 논문에서 탐구해오고 있다. 이 연구팀은 주로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분석과, 미가(米價), 임금, 지대(地代), 이자율, 육체적 특성 등 생활 수준의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선후기의 경제 확장과 침체를 다루고 있다.<sup>#23)</sup>

이 연구의 중요성은 전근대적 정체(기껏해야 약간의 성장이나 안정)와 근대적 성장이라는 이분법으로 부터의 탈피해서 조선후기 경제적 변동에 대해 역동적인 이해를 제공하려고 한 점일 것이다. 게다가 루이스와 그의

---

5) 포메란츠는 18세기 정도까지 유럽과 중국(특히 남부)의 경제적 지표들(생활수준, 시장발전, 농업생산성, 제도적 구조)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800년 이후에 영국은 석탄생산과 해외시장 등으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을 참고.

동료들은 경제사 영역에서 유럽 중심적 개념들에 도전하면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회계 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출간하기도 했다.<sup>#24)</sup>

사회경제사에 대한 이 단원을 마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오웬 밀러(Owen Miller)가 수도 [서울의 길드에 대한 자신의 연구의 일환으로 회계 방법에 대해 분석해왔다는 것도 언급해둘 가치가 있다.<sup>#25)</sup> 또한 이 비평논문이 19세기 말로 확장해서 보자면, 강성우(Sungwoo Kang)의 연구는 근대화와 관련성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제출된 그의 논문은 개항기시기 부산의 도시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데 어떻게 권력 구조들이 근대성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다룬다.<sup>#26)</sup>

## 6. 지성사 및 종교사

지성사 및 종교사라는 영역에서, 한국학계의 주된 쟁점은 유관 분야에도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전기보다는 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후기의 지성사적 발전을 이해하려는 접근에 초점을 맞추자면, ‘근대성’이라는 개념과 연관된 토론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실학(實學)’이라는 호칭은 유효한가? 이러한 발전들이 ‘근대성’을 의미하는지? 가톨릭의 전래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이고 이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배경은 무엇인가? 등이다.

서구 학계의 경우 지성사는 ‘위대한 전통’학파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분야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체로 조선전기 신유학의 ‘경전(經典, classic)’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물론 조선초기의 지성사가 ‘위대한 전통’학파의 접근이 갖는 ‘진실 체제’를 넘어서려는 시도에 다양한 종류의 중요한 질문들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학계의 성과는 신유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심오한 깊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동시에 새로

운 관점에서 보다 ‘실제적인(practical)’ 문제들, 예를 들면 정통(orthodox)의 성립이나 불교계에 대한 신유학의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사벨레 산초(Isabelle Sancho), 블라디미르 글롬(Vladimir Glomb), 크리스티안 무라지크(Christian Mularzyk)와 같은 새로운 젊은 학자들 세대가 이러한 복잡하지만 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경향이다.<sup>#27)</sup>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관심은 주로 고려나 그 이전시기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시대를 연구하는 쾨르그 플라센(Jörg Plassen)이나 야니크 브루네톤(Yannick Bruneton)과 같은 학자들이 또한 조선시대에 대해 가끔씩 논문들을 쓴다. 이 연구는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문제를 다루면서, 후자 즉 유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보완한다. 그 결과 이는 신유학 정통의 확립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촉진하게 된다.<sup>#28)</sup>

한국 역사학계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지성사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유럽의 학자들은 ‘실학’이라고 이름 붙은 이 시대의 경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아직도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sup>#29)</sup> 유교 전통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변화를 급격한 단절이 아닌 점차적인 전환으로서 이해하는 유럽의 학자들도, 이러한 변화경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양극화된 개념들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한국학자들과 같은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절보다는 전환으로 다루어진다면, 정통을 둘러싼 지속적인 투쟁이나 불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조선전기의 쟁점들은 조선후기로 유용하게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르티나 도이힐러는 17세기 정통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했고, 김대열(Kim Daeyol)은 당대 유학자들의 불교나 도교와 같은 이질적인 전통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부데윈 왈라벤(Boudewijn C.A. Walraven)은 유교사회에서 민중 종교의 위상을 검토했

다.<sup>#30)</sup>

앞에서 언급한 동아시아에서의 조공체제에 대한 재해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지성사의 한 쟁점은, 중화주의(中華主義) 문명에 대한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태도이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는 최근에 중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주는 수많은 업적을 생산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 주제는 안데쉬 칼손에 의해 비슷하게 다루어져왔는데 그는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변화하는 인식들이 어떻게 보다 포괄적으로 맥락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는 이들 변화를 유교의 정통이라는 중화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보다는 역사와 지리에 대한 동시대의 변화하는 개념들과 함께 영토와 영토권에 대한 태도들을 분석한다.<sup>#31)</sup>

조선시대의 기독교<sup>6)</sup> 전래도 유럽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외국선교사들에 의한 선전에서부터 국가에 의한 수용과 반응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분야의 쟁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연구들은 조선시대 역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이나 동아시아라는 맥락을 넘어서서 제공되고 있다.

제임스 그레이슨(James Grayson)은 이 분야에서 개척자인데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프로테스탄티즘)를 다루면서 조선이라는 유교사회에서 [이질적인] 종교들의 수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있다.<sup>#32)</sup> 일군의 젊은 학자군은 그레이슨의 방법론을 빌려오는 케빈 코오리(Kevin Cawley)와 피에르 루우(Pierre Emmanuel Roux)를 포함한다. 진자는 데리다(Derrida)의 비판이론을<sup>7)</sup> 적용해서 자신의 연구를 신유학이라는 맥락에

6) 저자는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통괄해서 '기독교'로 한다.

7) 자크 데리다(1930-2004)의 사상 중 텍스트의 중요성을 언급하자면, 데리다는 서양의 형이상학이 전제하는 로고스에 집착하지 않고 개별적, 구체적인 것으로서 기록

놓고 초기 가톨릭 수용과 한국인 회심자들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한 종교 전파와 조선 정부의 억압을 동시에 분석한다.<sup>#33)</sup> 18세기 한국에서 가톨릭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로 앤드류 핀치(Andrew Finch)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순교와 한국인 종교 교역자(clergy)의 형성을 연구했다.<sup>#34)</sup>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성사의 경향들도 조선시대 연구의 관심사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 주제인데 몇몇 연구는 이와 관련성이 있다. 한국학계는 이 시기를 단순히 변화보다는 연속성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서구의 사상들에 의한 유학 전통의 대체라기보다 두 사상 사이의 대화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은 유럽학계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지성적 경향에 대한 유럽에서의 연구의 주된 부분은 블라디미르 티코노프(Vladimir Tikhonov)의<sup>8)</sup> 수많은 연구물로부터 온다. 그의 연구는 이 시기의 사회진화론에 자세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는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이나 젠더 이데올로기(이는 이전 시기로도 확장되는 주제이다)라는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sup>#35)</sup> 티코노프의 업적과 더불어 코엔 데 슈스터(Koen de Ceuster)의 유길준에 대한 연구는 지성사에 대한 이 단락의 마지막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sup>#36)</sup>

---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구조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틀로서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탈피함으로써 역사적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갈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8) 한국에서는 박노자로 알려져있다.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Oslo University)의 한국학과 교수로 있다.

## 7. 결론

조선시대에 대한 유럽의 역사는 몇몇 연구의 학문 분과의 애매함 때문에 때때로 강제적으로 정치와 제도사, 외교사와 지역사, 사회경제사, 그리고 지성 및 종교사라는 하위 분과로 나뉘어져왔다. 위의 분야에 연관되면서도 흥미로운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장례 관습, 군사 기술들, 선물 경제(gift economy), 감자 및 고구마의 전래, 백과사전적 문헌, 서한 문학, 서울의 사회-종교적 지리 등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sup>#37)</sup>

이 비평 글은 동아시아학의 ‘위대한 전통’학파의 주요한 특징과 최근의 관련이 있는, 최근의 유럽에서의 [조선시대] 연구를 다루었다. 비록 여기서 언급된 연구가 너무나 다양해서 이 학파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넘어서서 나아갈, 목적 의식이 분명한 주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세밀함과 [광범위한] 범위라는 관점에서 이 글이 현재까지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풍부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다행일 것이다. [즉] 특정한 역사적인 패턴이나 발전의 양상을 구별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노력은 [향후] 보다 역동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지성사적으로 그 맥락을 보다 잘 제공해주는 역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1-BAA-2104).

- #1) Edwin O. Reischauer and John K. Fairbank, *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 (Boston : Houghton Muffin, 1960).
- #2) Martina Deuchler, “Is 'Confucianization of Korea' a Valid Concept of Analysi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2 (2007).
- #3)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 : Council of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92).
- #4) 예를 들면 위의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 William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1) ; 그리고 James B. Palais,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 Yu Hyŏngwŏn and the Late Chosŏn Dynasty*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6) 등을 보라.
- #5) Alexander Woodside, *Lost Modernities : China, Vietnam, Korea and the Hazards of World Histor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R. Bin Wong, *China Transformed :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6) Andrew David Jackson, “Peasant Violence and Rural Disturbances in Chŏlla Province: An Alternative View of Peasant Resistance,” *Oriental Archive* 76:2 (2008) ; Id., “Rebel Ideology in the Musillan Rebellion of 1728,” *Cashiers d' études Coréennes* 8 (2010) ; Id., “The 1728 Mussilan Rebellion: Resources and the Fifth-Columnis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2011 ; Id., “Rebel Military Strategy in the Mussillan Rebellion of 1728,” *BAKS Papers* 13 (2011) ; Id., “The Causes and Aims of Yŏngjo's Chŏngmihwan'guk,” *BAKS Papers* 13 (2011).
- #7) Anders Karlsson, *The Hong Kŏyngnae Rebellion 1811-1812 : Conflict between Central Power and Local Society in 19th Century Korea* (Stockholm : Stockholm University, 2000) ; Id., “Challenging the Dynasty : Popular Protest, Chŏnggamnok and the Ideology of the Hong Kyŏngnae Rebell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 (2001) ; Id., “Central Power, Local Society, and Rural Unrest in Nineteenth-Century Korea : An Attempt at Comparative Local History,”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6:2 (2006).

- #8) Anders Karlsson, “Famine, Finance and Political Power : Crop Failure and Land Tax Exemptions in Late Eighteenth-Century Chosŏn Korea,”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8:4 (2005) ; Id., “Royal Compassion and Disaster Relief in Chosŏn Korea,”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0:1 (2007) ; Id., “Famine Relief, Social Order, and State Performance in Late Chosŏ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2:1 (2007) ; Id., ‘Konfuciansk statsmannakonst, folkets välfärd, och omhändertagandet av föräldralösa barn i traditionella Korea’ [Confucian Statecraft,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Orphan Care in Traditional Korea], *Orientaliska Studier* 123 (2009) ; Id., “‘Scions of Wealthy Families do not Die in the Marketplace’ : Death Penalty and Hyosu Punishment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Chosŏn Korea,” in *Capital Punishment in East Asia*, edited by Tomiya Itaru (Kyoto : Kyoto University Press, 2012) ; Id., “Law and the Body in Joseon Korea : Statecraft and the Negotiation of Ideolog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6 (2013).
- #9)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ŏngjujŏn :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ŏn Korea,” unpublished Ph.D. thesis, SOAS, London University 2007. Id., “Ties of Labour and Ties of Commerce : Corvée Labour among Seoul Merchant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50:1 (2007) ; Id., “Sijŏn-kukka kan kŏrae wa 19-segi huban Chosŏn ŭi kyŏngje wigi : Myŏngjujŏn sangin ŭl chungsim ŭro” [Guild-Government Trade and Chosŏn’s late Nineteenth Century Economic Crisis : Focusing on the Myŏngjujŏn Merchants,] in *Chosŏn hugi chaejŏng kwa sijang*, edited by Lee Hun-chang (Seoul : SNU Press, 2010).
- #10) 예를 들면 Adam Bohnet, “On Either Side the River : The Rise of the Manchu State and Chosŏn’s Jurchen Subjects,” *Toronto Studies in Central and Inner Asia* 9 (2008) ; and Kenneth R. Robinson, “Residence and Foreign Relations in the Peninsular Northeast during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in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edited by Sun Joo Kim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0)을 보라.
- #11) James B. Lewis, *Frontier Contact between Chosŏn Korea and Tokugawa Japan* (London : RoutledgeCurzon, 2003) ; Id., “The Trade with Japan and the

- Economy of Kyŏngsang Province,” *Acta Koreana* 7:1 (2004) ; Id., “A Scroll of the 1748 Embassy to Japan Preserved in the British Museum,” *Acta Koreana* 13:1 (2010)
- #12) 이 작업의 웹페이지는 <http://circulationsao.wordpress.com>을 보라.
- #13) Barbara Seyock, “Pirates and Traders on Tsushima Island during the late 14th to early 16th Century : as Seen from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s,” in *Trade and Transfer acros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edited by Angela Schottenhammer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2005) ; Soon-mi Hong-Schunka, “An Aspect of East Asian Maritime Trade : The Exchange of Commodities Between Korea and Ryukyu,” in *Ibid.*
- #14) Walraven, Boudewijn, “Reluctant Travellers: Shifting Interpretation of the Observations of Hendrik Hamel and His Companion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1 (2007)
- #15) James Huntley Grayson, “Basil Hall’s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 The Value of a British Naval Officer’s Account of Travels in the Seas of Eastern Asia in 1816,”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1 (2007) ; James E Hoare, “Captain Broughton, HMS Providence (and Her Tender) and His Voyage to the Pacific 1794-8,” *Paper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7 (2000) ; Grace Koh, “British Perceptions of Joseon Korea as Reflected in Travel Literature of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4 (2006).
- #16) Pierre Emmanuel Roux, *La croix, la baleine et le canon : La France face à la Corée au milieu du XIXe siècle* (Paris : Éditions du Cerf, 2012)
- #17) 북미에서의 좋은 예는 커크 라슨(Kirk W. Larsen)의 조선에 대한 청의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당대의 조공체제의 작동이나 그 역할을 넘어서 라슨은 중국의 [조선에 대한] 동기와 전략들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그리고 청말의 정책이 19세기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Kirk W. Larsen,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 #18) Koen De Ceuster, “1907 nyŏn Heigŭ t’ŭksa ŭi sŏnggong kwa chwajŏl” [Success and failure of the Korean Delegation at the 2nd Hague Peace Conference.] *Han’ guksa hakpo* 30 (2008) ; Id., “The Third Man : Yi Wijong

- and the Korean Mission to the 1907 Hague Peace Conference,” in *Mélanges Offerts à Marc Orange et Alexandre Guillemoz*, edited by Martine Prost (Paris : College de France, 2010) ; Karoly Fendler, “The Japanese Plan to Abduct Korean Emperor Gojong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1905 : How Russian Diplomats Saved the Emperor,” *Far Eastern Affairs* 38:4 (2010) ; Id., “Austro-Hungarian Sources on the Tonghak Uprising and on the Chinese-Japanese War,” in *Vestnik Centra Korejskogo Jazyka I Kul'tury, vyp. 3-4*. (St. Petersburg : St. Petersburg Center for Oriental Studies, 1999) ; Michael Finch, “German Diplomatic Documents o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Korean Studies* 20 (1996)
- #19) Michael Finch, “The Role of Min Yŏnghwan in Korea’s Protest against the Ŭlsa Treaty of Protection,” *Paper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7 (2000) ; Id., *Min Yŏng-hwan : A Political Biography*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 #20) Martina Deuchle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Eighteenth-Century Korea,” in *The Last Stand of Asian Autonomies : Responses to Modernity in the Diverse States of Southeast Asia and Korea, 1750-1900*, edited by Anthony Reid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7) ; Id., “Is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Applicable to Late Chosŏn Korea?” in *Etat, Société et Sphère Publique en Asie de l'Est* edited by Charles Le Blanc and Alain Rocher (Montreal : Centre d'Etudes de l'Asie de l'Est, Universitéde Montréal, 1998)
- #21) Martina Deuchler, “Is ‘Confucianization of Korea’ a valid concept of analysis?,” 22.
- #22) 보다 심도깊은 설명은 Anders Karlsson, “Recent Western-European Historical Studies on ‘Pre-Modern’ Korea and the Issue of ‘Modernity’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8:1 (2013)을 볼 것.
- #23) 예를 들어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것. James B. Lewis and SH Jun, “Wages, Rents, and Interest Rates in Southern Korea, 1700 to 1900,”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24 (2006) ; James B. Lewis, SH Jun and HR Kang, “Korean Expansion and Decline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 A View Suggested by Adam Smith,”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8:1 (2008) ; Id., “Stability or Decline? Demand or Suppl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9:4 (2009)

- #24) Seong Ho Jun and James B. Lewis, “Accounting Techniques in Korea : 18th Century Archival Samples from a Non-Profit Association in the Sinitic World,” *Accounting Historians Journal* 33:1 (2006) ; Seong Ho Jun, James Lewis and Sung-Kwan Huh, “Korean Double-Entry Merchant Accounts from Kaesŏng City (1786-1892),”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2 (2013)
- #25) Owen Miller, “The Myŏnjuhŏn Documents : Accounting Methods and Merchants' Organizations in Nineteenth Century Korea,”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1 (2007)
- #26) Sungwoo Kang, “Colonizing the Port City Pusan in Korea : A Study of the Process of Japanese Domination in the Urban Space of Pusan during the Open-Port Period (1876-1910),”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2012
- #27) Isabelle Sancho, “Chŏgsim (‘rendre droit son cœur’), une notion cardinale de l’interprétation coréenne du néo-confucianisme. Étude centrée sur Yulgok, Yi I (1536-1584),”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NALCO 2006 ; Id., “L’orthodoxie néo-confucéenne coréenne de la première moitié de Chosŏn (XIVe-XVIe siècles) et les interrogations de type religieux: le cas de Yulgok, Yi I (1536-1584),” in *Le nouvel âge de Confucius. Modern Confucianism in China and South Korea*, edited by Flora Blanchon and Rang-Ri Park-Barjot (Paris : PUPS, 2007) ; Vladimir Glomb, “Chŏnsŭmnoknonbyŏn – T’oegye Yi Hwang’s Critique of Wang Yangming in 1566,” in *Essays in Commemoration of the Centenary of the Birth of Jaroslav Prusek*, edited by Dusan Andrs, *Orientalia Pragensia* XVI (2009) ; Christian Bernard Mularzyk, “Reapproaching the Iphak Tosŏl : Some Random Remarks on the Structural Peculiarities of the ‘Ch’ŏn In Sim Song Punsok Chi To,”” *Archiv Orientalni* 76:2 (2008) ; Lukas Pokorny, “Aporie des inaktiven Dynamisierenden bei Yulgok” [The Aporia of the Inactively Dynamizing in the Thought of Yulgok,] *Wiener Beiträge zur Koreaforschung* I (2008)
- #28) Jörg Plassen, “From Apologetics to Subversion : Some Initial Observations on Sŏlchan’s Chosong Owi Yohae,” in *Zen Buddhist Rhetoric in China, Korea and Japan*, edited by Christoph Anderl (Leiden: Brill 2012) ; Yannick

Bruneton, “Comment la répression du religieux a-t-elle accompagné la réforme du régime monarchique de T’aejong? –Les mesures antibouddhiques au début du xve siècle en Corée,” in *Etat, religion et répression en Asie – Chine, Corée, Japon, Vietnam (XIIIe-XXIe siècles)*, edited by Arnaud Brotons, Yannick Bruneton and Nathalie Kouamé (Paris : Karthala, 2011) ; see also Lukas Pokorny, “Anti-Buddhist Polemics in the Yongbiŏch’ŏn’ga,” *Studia Orientalia Slovaca* 9:1 (2010)

- #29) 하나의 예외는 런던대 SOAS의 박사과정의 송선관 (Sun Kwan Song)의 경우인데 그는 이 시대의 광범위한 지적 경향을 이해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한다.
- #30) Martina Deuchler, “Despoilers of the Way-Insulters of the Sages : Controversies over the Classics in Seventeenth-Century Korea,” in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edited by JaHyun Kim Haboush and Martina Deuchle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 Boudewijn Walraven, “Popular Religion in a Confucianized Society,” in *Ibid* ; Kim Daeyol, “Chosŏn Confucian Scholar’s attitudes toward the Laozi,”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2 (2007).
- #31) Anders Karlsson, “Geography and Civilization : Chŏng Yagyong and Late Chosŏn Notions of *Chunghwa*,” *Tasanhak* 16 (2010) ; Id., “Northern Territories and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erritory in Late Chosŏn,” in *Key Papers on Korea : Essays Celebrating 25 Years of the Centre of Kore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edited by Andrew David Jackson (Leiden : Global Oriental, 2013). 유진 리(Eugene Lee)도 SOAS의 연구생인데 그의 연구는 17-19세기의 한국인 사신들의 여행기록인 ‘연행록(燕行錄)’을 주로 검토하면서 청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표상(表象)들을 검토하고 있다.
- #32) James H. Grayson, “The Emplantation of Christianity : An Anthropolog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Church,” *Transformation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olistic Mission Studies*, 26:3 (2009)
- #33) Kevin Cawley, “From Matteo Ricci to Tasan (Chŏng Yagyong) : Deconstructing Christianity in a Neo-Confucian Contex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2010 ; Id., “Deconstructing Hegemony : Catholic Texts in Chosŏn’s Neo-Confucian Context,” *Acta Koreana* (2012) ; Pierre-Emmanuel Roux, “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 Catholics in Chosŏn Korea,” *Acta Koreana* 15:1 (2012) ; Id., “Chosŏn kagyo ũ chaebalgŷon : 16-19 segi ch’ŏnjugyo sŏ’gyosa ũi Chosŏn chinch’ul chŏllyak e taehan kich’o yŏn’gu [The Rediscovery of the Korean bridge : A Preliminary Study of the Catholic Missionaries’ Strategies regarding Korea, 16th-19th Century,] *Yŏnmin hakchi* 16 (2011)
- #34) Andrew Finch, “The Pursuit of Martyrdom i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before 1866,”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60:1 (2009) ; Id., “A Necessary and Fruitful Labour : The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and the Formation of a Native Clergy in Korea, c.1836-66,” *Historical Research* 81 (2008)
- #35) Vladimir Tikhonov, “World is a Battlefield : Social Darwinism as the New Model of Korean Intelligentsia of the 1900s,”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27 (2003) ; Id., “Korea’s First Encounters with Pan-Asianism Ideology in the Early 1880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5:2 (2002) ; Id., “Masculinizing the Nation : Gender Ideologies in Traditional Korea and in the 1890s-1900s Korean Enlightenment Discours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6:3 (2007) ; Id., “Fascinating and Dangerous : Japan in Korea’s Enlightenment Thought in the 1900s,” in *Korea : The Past and the Present : Selected Papers from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BAKS Papers Series, 1991-2005*, volume 1, edited by Susan Pares (Kent, England : Global Oriental, 2008) ; Id., “Knowledge is Strength : Social Darwinism in Pre-colonial Education in Korea (1895-1910),”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32 (2008) ; Id., *Social Darwinism and Nationalism in Korea -the Beginnings, 1883-1910 : ‘Survival’ as an Ideology of Korean Modernity* (Leiden : Brill, 2010)
- #36) Koen De Cuester, “The World in a Book : Yu Kilchun’s Sŏyu kyŏnmun,” in *Korea in the Middle : Korean Studies and Area Studies : Essays in Honour of Boudewijn Walraven*, edited by Remco E. Breuker (Leiden : CNWS Publications, 2008)
- #37) Charlotte Horlyck, “Confucian Burial Practices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1:2 (2008) ; Andrew Pratt, “Change and Continuity in Chosŏn Military Techniques during the Later

Chosŏn Period,” *Paper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7 (2000) ; Owen Miller, “Tobacco and the Gift Economy of Seoul Merchant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SOAS-AKS Working Papers in Korean Studies* 3 (2008) ; Felix Siegmund, “Tubers in a Grain Culture : The Introduction of Sweet and White Potatoes to Chosŏn Korea and Its Cultural Implications,” *Korean Histories* 2:2 (2010) ; Andreas Mueller-Lee, “Chaptong sani ūi sŏji hangmun chŏk munje kŭrigo yusŏ wa ūi kwan'gye e taehan myŏt kae ūi pangju [Some Source-critical Remarks on the Miscellaneous Similarities and Scattered Differences and its Relation to the Pre-modern Encyclopedic Taxonomies of Writings,]” *Kyujanggak* 31 (2007), pp.261-281 ; Marion Eggert, “Scholarly Letters,” “Friendship Between Men,” and “Friendship with Foreigners,” in *Epistolary Korea : Letters from the Communicative Space of the Chosŏn, 1392-1910*, edited by JaHyun Kim Haboush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 and Boudewijn Walraven, “Religion and the City: Seoul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3:1 (2000)